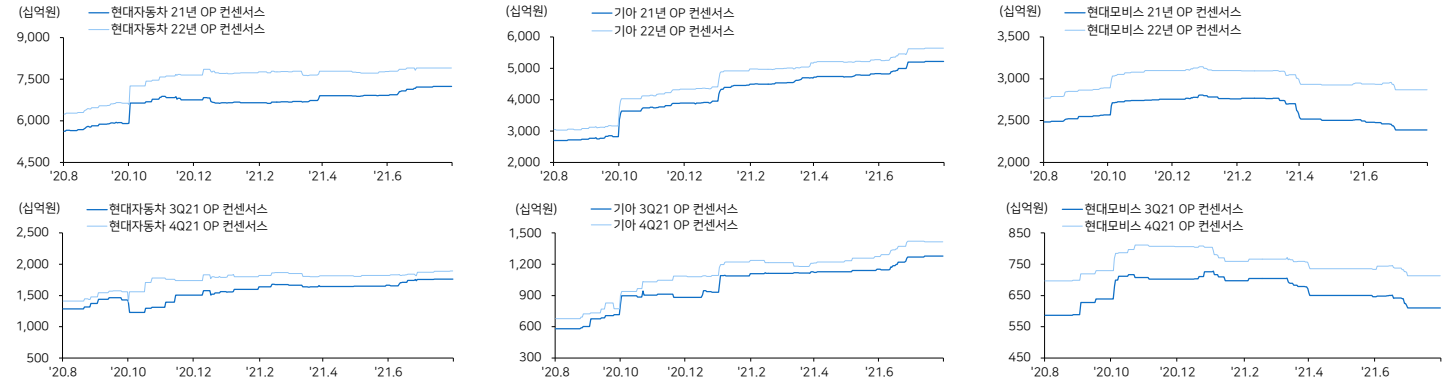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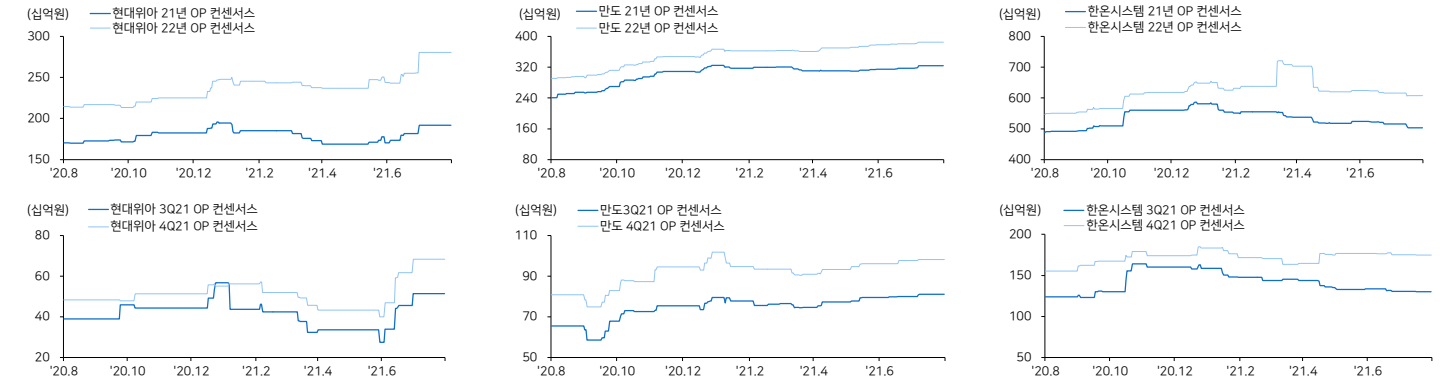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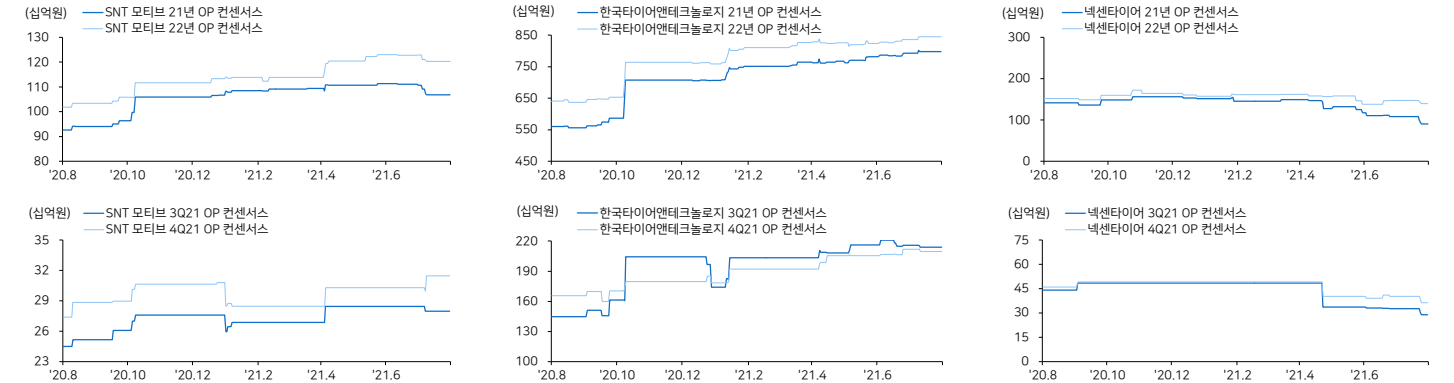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기아, 친환경차 판매 '질주' (파이낸셜뉴스)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 시장에서 판매한 친환경차 대수는 총 13만6,676대로 전년동기 대비 47.1% 증가함. 전기차 판매 또한 국내에서 총 3만9,429대가 팔려 전년동기 대비 141.9% 급증. 아이오닉과 EV6가 실적을 견인함. <https://bit.ly/38HC6zL>

현대위아, 전방산업 호황 따른 '재고 회전율 향상' (The Bell)

올해 상반기 현대위아의 영업활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한 시기를 보냄. 전방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호황과 제조업체들의 기계장비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재고자산 회전율이 크게 향상했고, 영업순환주기(재고자산→매출→현금)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https://bit.ly/3n1Uv63>

벤츠·BMW 다음은 이제 테슬라...수입차 전성시대 `활짝` (디지털타임스)

국산차 신차 등록은 10만1,305대를 기록해 지난해 대비 5.1%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2만4,601대로 지난해 대비 4.6% 상승함. 특히 테슬라가 8월 총 2,431대를 판매하며 yoy 84.3% 증가한 실적을 보여줌. <https://bit.ly/38ESlvr>

Tesla Model Y takes over Norway, pushes all-electric car sales to 72% market share (electrek)

Tesla는 지난달 유럽에서 Model Y의 인도를 시작했으며 일주일 만에 1,115대가 판매되며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 됨. 이는 BEV 판매 점유율 72% 달성에 기여함. 2번째로 많이 팔린 전기차는 VW의 ID.4로 알려짐. <https://bit.ly/3n3nRFx>

기아 8월 인도 판매 11.1% 수직 상승...1만6750대 기록 (THE GURU)

반도체 소티지로 대부분 완성차 브랜드가 지난해 주춤한 가운데 기아가 8월 인도 시장에서 yoy 11.1% 증가한 16,750대를 판매하며 독보적인 성장세를 기록. 기아는 반도체 공급망 다각화와 함께 새로운 모델 출시를 병행할 계획. <https://bit.ly/3yFgdPw>

트럭·버스에도 친환경 바람... 토요타·볼보·현대차, 주행거리 경쟁 (조선비즈)

친환경차가 승용차를 넘어 상용차 시장으로 확장 중. 수심톤 화물을 나르는 상용차는 디젤 엔진을 주로 사용해왔지만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와 승용차 시장 전동화 가속화로 인해, 상용차 업체들도 잇따라 친환경 상용차 개발에 나서고 있음. <https://bit.ly/3zFoNza>

BMW to reduce carbon emissions in car life cycle 40% by 2030 (Reuters)

BMW는 2030년까지 생산 공정을 포함한 차량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에서 최소 40%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 이를 위해 재활용/재사용 가능한 재료 비율을 30%에서 50%로 늘릴 계획. <https://reut.rs/3yFfmhM>

에어택스 '시대 열린다'...美 NASA, 비행 테스트 시작 (아시아경제)

NASA는 지난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의 UAM 스타트업인 조비 에어비이션사의 eVTOL을 대상으로 비행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NASA가 추진 중인 고동력공모빌리티(AAM)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 <https://bit.ly/38CoTvu>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